

목포해수청, 「연안정화의 날」 기념 해양정화활동 추진

- 올해 목포항 내 해안 정화활동 5회 실시 예정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3월부터 11월까지 「연안정화의 날」을 맞아 총 5회에 걸쳐 목포시, 영암군, 목포해경,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‘해양정화활동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

올해 해양정화활동은 소형어선부두, 유류부두 등 평소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어 민원이 잦은 장소를 위주로 선제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.

특히, 5월 바다의 날과 9월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수거활동과 연계해 대규모 합동 정화활동을 펼쳐, 여름철 집중호우 전후 하천쓰레기 해양유입에 따른 목포항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올해도 적극적인 해양정화활동을 통해 쾌적한 목포항 조성 및 해양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	책임자	과 장	김현성 (061-280-1670)
		담당자	주무관	강윤영 (061-280-1679)